刻舟求劍

刻:새길 각　舟:배 주
求:구할 구　劍:칼 검

刻舟求劍(각주구검)

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

刻 (4급) 舟 (3급) 求 (4급) 劍 (3급)

칼이 떨어진 뱃머리 자리에 표시해 놓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성어다.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 매우 소중히 여기는 칼을 안고 양자강을 건너고 있었다. 그는 강 가운데쯤 왔을 때 그만 아끼던 칼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다. 경황 중에 다른 칼을 꺼내어 칼이 빠진 부분의 뱃가에 자국을 내어 표시해놓았다. 배가 도착지에 이르자 표시된 지점의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칼을 찾았으나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떨어진 칼은 찾을 수 없었으니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빗대고 있는 성어로, 오씨춘추전 참금편(察今篇)에 전해진다.

刻	새길 각 刀부 · 8획	刻	刻	舟	배 주 舟부 · 6획	舟	舟
求	구할 구 水부 · 7획	求	求	劍	칼 검 刀부 · 15획	劍	劍

틴틴 한자

討論 토 론 : 바른 이치를 궁구함

※ 활용낱말 : 討伐(토벌), 討賊(토적), 論理(논리), 言論(언론)

討 칠 토 — 부수 : 言(말씀 언) 총획 : 10획

論 논할 론 — 부수 : 言(말씀 언) 총획 : 15획

※ "이렇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討論 주제(主題)를 정하는 것이 오늘의 문제(問題)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."